

▶ 아동

미국 조기 유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탐색 연구

유 정 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전 속 영*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김 태 은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

본 연구는 조기 유학생의 현지 부적응 문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 미국에 조기 유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요인들을 밝혀 조기 유학생의 현지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출생한 청소년들로 미국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 중·고등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 현지의 한인 교포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유학생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대상을 수집하고 설문지를 송부한 후 2주에 걸쳐 e-메일(12부)과 항공우편(104부)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Speilberger(1970)가 개발한 TAI(Trait Anxiety Inventory)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불안을 측정하였고, Beck의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권석만(2000)이 수정한 우울증 간이진단검사로 우울을 측정하였으며,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배경(성별, 연령, 체류 기간, 유학계기, 지원체계 유무, 귀국의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조기 유학생의 배경에 따라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산출하였고, 통계처리를 위해 SPSS WIN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 수준은 체류 기간, 지원체계의 유무, 귀국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국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와 지원체계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 귀국의지를 가진 경우에 불안 수준이 높았다. 즉, 체류 기간이 길수록, 지원체계가 있거나 혹은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현재 귀국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불안 수준이 낮았다. 둘째, 우울은 체류 기간, 지원체계의 유무, 귀국의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체류 기간이 길고 지원체계가 있거나 혹은 스스로 현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귀국의지가 없는 경우에 우울 수준이 낮았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체류 기간과 귀국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국 체류 기간이 길고, 국내 귀국의지가 없는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미국 조기 유학생의 심리적 안정성과 관련된 요인은 체류 기간, 지원체계의 유무, 귀국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기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현지 적응 도모 대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조기 유학생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지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학생이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선진국 형 교육을 받은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유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